

해남매일시장 야시장 오늘부터 재개장

11월22일까지 둘째·넷째 금요일

‘땅끝달달 문화야행’ 운영

먹거리·놀거리·볼거리 풍성

해남매일시장 야시장이 여름철 휴장을 끝내고 이번 주부터 재개장한다.

해남군에 따르면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땅끝달달 문화야행’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해남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해 열리는 야시장 달달야행은 먹거리 판매뿐 아니라 볼거리와 놀거리, 즐길거리까지 풍성한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운영된다.

27일 행사에서는 가을테마인 ‘별이 빛나는 밤’에 맞춰 가을 노래 위주로 문화공연이 마련된다.

30분마다 6번의 경매행사가 펼쳐져 매일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과 수산물, 4대주락 상품을 경매로 판매한다.

달달야행 먹거리인 ‘치맥’ (치킨+맥주), ‘무소’ (무침류+소주), ‘부막’ (부침개+막걸리), ‘견쪽’ (견어묵과 꼬치류+폭탄주) 등 ‘4대주락’을 선보인다.

4대 주락과 함께 해남의 농산물로 만든 ‘연호수



해남매일시장 야시장이 여름철 휴장을 끝내고 이번 주 재개장한다. 해남매일시장 야시장 달달야행 행사 모습. <해남군 제공>

제맥주’와 ‘해남 쌀 아이스크림’도 판매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초콜릿 풍류체험’과 매일시장 2층 청년몰의 청년상인들과 관내 공예전문 강사들이 협업한 ‘공예체험’도 무료로 진행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달달야행 행사가 해남군민과 여행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행사로 자리잡아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원동 교차로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완도군 원동 교차로에 조성된 ‘기후 대응 도시 숲’.

완도군은 최근 군외면 원동교차로에 대규모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시 내·외각에 위치한 유휴지에 대규모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고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국도13호선이자 완도군 관문인 군외면 원동 교차로 일원(2.2ha)이다.

탄소 흡수율과 산소 발생량이 많은 구실잣밤나무, 종가시나무, 황칠나무, 굴거리나무 등 지역 특산 난대수종 21종, 7만8446그루를 심었다.

기후 대응적인 측면뿐 아니라 약 1km의 산책로와 정자 등 주민들을 위한 휴식, 산책, 공간 등 편의 시설도 갖췄다.

군은 2022년 완도항여객선터미널과 농공단지 일원에도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했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원동교차로의 기후 대응 도시 숲은 지역 관문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해 난대림을 부각했다”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2025년 뮤직플레이’ 총감독 공모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신청

목포시는 ‘2025년 뮤직플레이’를 독창적이고 완성도 있게 기획·연출할 총감독을 공개모집 한다고 26일 밝혔다.

뮤직플레이는 근대 대중음악의 본거지인 목포를 명실상부 음악의 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내년 5월 개최되는 목포만의 음악 축제다.

총감독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9월 23일) 축제, 문화행사, 이벤트 등 관련분야 단일행사 5억원

이상 규모 합산 5년 이상의 총괄 기획·연출·운영 실무경력이 있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이며 전자우편(pk7028@korea.kr) 또는 우편(목포시 양로로 203 3층 문화예술과)으로 가능하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월출산 아래서 고즈넉한 야외영화 감상

금정문화센터 내달 5일 영화제

수제맥주 행사·로컬푸드 장터도

영암군이 다음 달 5일 금정면 생활문화센터 앞에서 ‘월출산 아래 야외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는 영암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금정면청년회, 위드석봉협동조합과 함께 주최해 성악그룹 브리앙트의 ‘해 질 무렵 공연’과 영암수제맥주 행사, 로컬푸드·수공예장터 등으로 펼쳐진다.

앞서 센터는 지난 6월 금정면 주민 125명을 대상으로 주민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주민 50명(40%)이 희망하는 주민프로그램으로 영화감상(1위)을 뽑았다.

영암읍에 작은 영화관(기찬 시네마)이 있지만 관람하러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금정면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해 이번 영화 상영을 준비했다.

첫 상영작은 프랑스 여성지휘자 이야기를 담은 ‘디베르티멘토(마리카스티유 망시옹샤르 감독)’로 성별·계급·인종차별에 맞서 오케스트라를 만든 자아가 지우아니의 실화를 다룬 영화다.

사전공연에는 영암에 동지를 둔 청년성악그룹 브리앙트와 영암군 첫 마을합창단인 브리앙트합창단(단장 문선화)이 처음으로 무대에 오른다.

올해 조성된 기초생활거점 금정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문화생활, 배후마을 서비스 전개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행사를 위한 야외잔디광장, 공유부엌, 정보화교실, 당구교실 등을 갖췄다.

이훈 위드석봉협동조합 이사장은 “조용한 금정면 자연 속에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려 퍼지는 것을 떠올렸다”며 “사회의 벽을 넘어 활동한 여성지휘자 줄거리가 남성 중심의 농촌사회와도 연결됐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신안군 맞춤형 중장기 임대농장인 퍼플 바나나 시범단지 개소식 후 시설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임대농장 ‘퍼플 바나나 시범단지’ 개소

6000㎡ 규모 첨단설비 스마트 온실

신안군이 지난 25일 신안군 맞춤형 중장기 임대농장인 퍼플 바나나 시범단지 개소식을 가졌다.

신안군 맞춤형 중장기 임대농장은 기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과는 달리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5년 이상 장기임대 운영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퍼플 바나나 시범단지는 지자체와 지역농협간의 협력사업으로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자동 양액 공급기, 난방설비 및 후숙 시설 등을 갖춘 6000㎡ 규모의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로 지어졌다.

퍼플 바나나 시범단지는 2022년부터 비금면 바나나연구회(대표 김여남) 회원 10명이 참여해 연간 약 40t의 바나나를 생산하고 있다.

신안군은 팔금면에 6000㎡ 규모의 청년농부 일자리 창출형 스마트 시설인 퍼플 바나나 농장을 신축해 2025년부터 바나나 재배기술 현장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가공상품 개발 등 바나나를 활용한 6차 산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도초면에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의 재배 생산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스마트팜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총면적 7.5ha의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개소식 행사에서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재배로 급변하는 기후 온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갖춘 선도 농업인 육성에 힘쓰겠다”면서 “나아가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